

- 주요 뉴스: 11월 FOMC 개척 0.75%p 인상 예상 향후 금리경로 신호 발신 여부 등에 관심
 - ECB 라가르드 총재,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인상에 나설 방침
 - 영국 총리, 500억파운드 규모의 증세 혹은 재정지출 축소를 검토
 -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참여 중단 선언 글로벌 곡물가격 상승 우려 제기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4.0%], 달러화 약세[-1.1%], 금리 하락[-20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일부 빅테크 제외 전반적으로 양호한 기업실적 등이 배경
 유로 Stoxx600 지수는 예상에 부합하는 ECB 통화정책회의 등으로 3.7%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영향
 유로화가치는 1.0% 상승, 엔화는 강보합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2월 FOMC에서의 금리인상 폭 하향 가능성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31bp 하락

※ 원/달러 환율(주간) 1.3% 하락, 한국 CDS 상승

		10/28일	10/21일	전주말대비			10/28일	10/21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3,901.1	3,752.8	3.95%	국채 금리 10y	미국	4.01%	4.22%	-20bp
	유럽	410.76	396.29	3.65%		독일	2.10%	2.42%	-31bp
	중국	2,915.9	3,038.9	-4.05%		영국	3.48%	4.05%	-58bp
	일본	27,105	26,891	0.80%	CDS 5y	한국	66bp	62bp	4bp
	한국	2,268.4	2,213.1	2.50%		중국	120bp	115bp	5bp
환율	달러지수	110.75	112.01	-1.12%	위험 지표	EMBI+	-	477	-
	유로화	0.9965	0.9862	1.04%		VIX	25.75	29.69	-13.27%
	엔화	147.60	147.65	0.03%		WTI유	87.90	85.05	3.35%
	위안화	7.2524	7.2306	-0.30%	원자재	구리	342.9	347.5	-1.31%
	원화	1,421.5	1,439.8	1.29%		금	1,644.9	1,657.7	-0.7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11월 FOMC 개최, 0.75%p 인상 예상. 향후 금리경로 신호 발신 여부 등에 관심
 - 11/1~2일 FOMC가 예정되어 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과 선물시장 움직임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가 0.75%p 인상될 가능성. 이 경우 연방기금금리는 3.75~4.00%에 이르러 '07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
 - 시장의 주요 관심사는 파월 의장의 향후 금리경로와 관련된 의견 제시 여부. 최근 글로벌 성장률 둔화 및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시각이 확산되면서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
 - CME Fed Watch Tool에 따르면, 12월 FOMC에서 0.50%p 인상 가능성이 0.75%p 인상 가능성보다 다소 높은 편(각각 46.8%, 44.9%). 그 동안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으나, 최근 일부 정치권과 투자자들은 과도한 통화긴축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 특히 최근 발표되고 있는 주택지표들과 대기업의 3/4분기 실적 및 4/4분기 실적 전망은 향후 경기둔화 신호를 발신. 3/4분기 GDP 역시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약화된 소비자 수요 등은 향후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수 있음을 시사
 - 한편 11/4일 10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블룸버그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이 19만건 늘어 '21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 이러한 예상이 11월 FOMC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사안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선거 승리 시 중국의 군사경제 위협 조사할 계획
 - 케빈 맥카시 대표는 11/8일 예정된 하원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중국의 군사 및 경제적 위협, 코로나 19 발생과 중국의 연관성 등을 밝히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 최근 민주당 의원들도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 피력
- 골드만삭스, 연방기금금리 정점은 내년 3월 5%로 예상. 기존 전망 상향
 - 얀 해치우스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3월에 연방기금금리를 4.75~5.00%까지 높일 수 있다고 예측. 구체적으로 금년 11월에 0.75%p, 12월에 0.50%p, 내년 2월 및 3월에 각각 0.25%p 인상에 나설 것으로 판단

■ ECB 라가르드 총재,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인상에 나설 방침

- 인플레이션 종식은 우리의 신념이며, 사명이라고 강조. 특히 목표는 인플레이션 수준을 중기 측면에서 2.0%까지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카지미르 총재 역시 경기침체 가능성에도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
- 반면 프랑스 중앙은행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반드시 0.75%p 인상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의견 피력. 네덜란드 중앙은행 노트 총재는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0.50%p 혹은 0.75%p 인상이 예상된다고 발언

■ 영국 총리, 500억파운드 규모의 증세 혹은 재정지출 축소를 검토

- 수낙 총리는 예산 부족을 완충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최대 500억파운드 규모의 재원을 확충하겠다고 언급.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중국 인민은행 총재, 실물경제 신용 지원을 강화할 계획. 위안화 환율 안정을 유지

- 이강 총재는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코로나 팬데믹 봉쇄 조치와 부동산 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유연성 강화를 통해 위안화 환율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첨언

■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참여 중단 선언. 글로벌 곡물가격 상승 우려 제기

-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부대가 자국 흑해함대를 드론으로 공격했기에 우크라이나 항구에서의 농산물 수출 협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발표. 최근 상당 부분 안정되었던 세계 곡물가격이 재차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부각
- UN의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향후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언급. 튀르키예의 홀루시 아카르 국방장관 역시 곡물 수출은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화로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0/31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0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 PMI 및 시카고 PMI
- 유로존 3/4분기 성장률 및 10월 소비자물가, 중국 10월 제조업 및 비제조업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양호한 소비 여건, 연준의 금리인상 장기화를 유도할 가능성 - WSJ

(Cash-Rich Consumers Could Mean Higher Interest Rates for Longer)

- 연준은 인플레이션 고착화 방지를 위해 11월 FOMC에서 0.75%p 금리인상에 나설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11월 이후 연준은 금리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
-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고금리 대비 소비의 변화가 제한적임을 고려 시 연준이 연방기금금리를 내년 초 4.6%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 제시. 이는 팬데믹 기간 경기부양책 등으로 가계, 기업, 지방정부의 지출 여력이 양호하기 때문
- 특히 3/4분기 임금수준은 노동시장의 수요우위 등을 배경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상당한 수준의 가계소비가 지속될 소지. 이에 연방기금금리는 내년 5.25% 상승 전망에 무게(하버드 대학의 Jason Furman)

■ 미국 정부, EU와의 무역관계 개선을 모색 - 블룸버그

(Biden Hits Fresh Bumps in Plan to Smooth Trade Ties With EU)

- EU 회원국들은 미국의 청정에너지 보조금 관련 자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에 반발. 양측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 일부 전직 관계자들은 이번에 뚜렷한 성과가 없으면, 미국의 중국 고립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진단
- EU는 미국에 300개에 달하는 주요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 전체 수입의 4%에 불과. 반면 중국은 주요 제품 공급 능력이 취약하지만 미국 수입에서 비중이 10%로 오히려 높은 편. 이를 감안할 때 미국은 EU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유인이 크다고 판단(Allianz Trade)

■ ECB, 금융시장에 좀 더 비둘기파적 정책이 가능하다는 신호 발신 - Financial Times

(ECB convinces markets it is about to turn more dovish)

- ECB는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0.75%p 금리인상을 단행. 그러나 성명문과 기자회견의 어조에서 투자자들에게 금리상승에 대한 과도한 베팅 자세를 촉구한 것으로 평가. 실제로 이번 성명문에서 기존에 있던 '향후 몇 차례 회의에서 금리인상'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추가 금리인상'으로 대체
- 라가르드 총재가 자산매입프로그램의 일부 재투자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12월에 논의할 것임을 밝힌 점은 여타 중앙은행들이 이미 시작한 양적긴축 프로세스를 점진적으로 이행할 것임을 시사(Evercore ISI의 Krishna Guha)

■ 신흥국 증시, 기업의 실적 부진 가속화 징후 발생 - 블룸버그

(Emerging Stocks Are Flashing a 2008 Financial Crisis Signal)

- 통상적으로 증시에서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후행 PER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 하지만 최근 MSCI 신흥국 지수는 '0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후행 PER가 9.55로 선행 PER(10.1)을 하회. 이는 세계적 수요 둔화, 비용 증가 등으로 신흥국 기업 실적 악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
- 미국 달러화 강세가 완화된다면 신흥국 기업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될 가능성 존재(Credit Suisse의 Andrew Garthwaite). 그러나 높은 인플레이션과 양호한 노동시장 등으로 연준의 정책 선회 기대가 낮다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

■ 일본은행의 완화기조 유지 결정, 엔화 약세를 유도 - 블룸버그

(Yen Weakens as BOJ Sticks With Ultra-Low Rates Policy Path)

- 일본은행은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초저금리 및 강력한 완화기조 유지 입장을 재확인. 이는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전체적으로 2%를 하회할 수 있다는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정책기조의 일부 조정 의지를 피력할 수 있다는 시장 예상과 다른 행보. 이에 엔화는 달러화 대비 평가 절하(-0.89%)
- 향후에도 일본은행은 구로다 총재 임기가 끝날 때까지 현행의 완화적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정부 역시 임금인상이 가능한 여건 조성에 집중할 것으로 판단(Daiwa Securities의 Toru Suehiro)

■ 미국 국채시장의 유동성 부족, 금융위기 초래 원인이 될 우려 - WSJ

(Rocky Treasury-Market Trading Rattles Wall Street)

■ 미국 달러화 강세, 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쳐 연준의 통화긴축 방해할 소지 - 블룸버그

(Strong Dollar Seen Hurting US Outlook and Even Tilting Fed Path)

■ 전세계 통화당국, 세심한 금리 영향 평가 통해 과도한 긴축 예방할 필요 - Financial Times

(The tricky balancing act for central bank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